

##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성과 베트남·캄보디아 국가기록원 등에 전파한다

- 국가기록원, 2022년부터 ‘베트남·캄보디아 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’ 운영
- 올해로 3년차, 세미나토론 통해 각국 기록관리 정책과 실행 방안 공유(8.26.~8.30.)

-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 국가기록원은 8월 26일(월)부터 8월 30일(금)까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베트남·캄보디아 기록관리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‘베트남·캄보디아 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.
- 연수 대상 기관은 베트남 국가기록원, 캄보디아 국가기록원과 특별재판소, 법률문서센터, 투올슬렝(Tuol Sleng)박물관 등 5개 기관으로, 올해는 기록관리분야 관계자 총 29명\*이 연수에 참여한다.
  - \* 베트남: 국가기록원 5명
  - 캄보디아: 국가기록원 13명, 특별재판소 4명, 법률문서센터 3명, 투올슬렝박물관 4명
- 국가기록원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디지털 기록관리 발전방안 모색과 인적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3개년 과정으로 본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.
- 2022년 1차 과정(온라인)은 총론, 기본강의로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정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기록관리 현황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.
- 2023년 2차 과정(초청연수)은 방법론, 실무·실습 강의로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사례 공유, 보존 등 유형별 실습을 진행했다. 특히, 연수대상국 기록관리 분야 공무원의 실무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연수과정을 운영했다.

- 연수 3년 차를 맞은 올해는 디지털 기록관리 적용, 심화 과정으로 연수 대상 기관이 위치한 캄보디아 현지에서 연수가 진행되고,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‘세계기록유산 보존사업과 활용 사례강의’ 등 일부는 원격으로 진행된다.
  - 특히, 이번 연수 과정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참가기관에서 사전제출한 교육수요를 반영해 현안 문제해결 중심의 강의와 질의응답 방식의 세미나 형태로 진행된다.
  - 또한, 양국의 기록관리 발전을 위해 기록관리 정책과 실행 방안을 제안하는 뜻깊은 자리도 마련된다.
- 한편,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공적개발원조(ODA) 사업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, 아프리카 등 수요국의 기록관리 발전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 기록관리 연수과정을 운영해 29개국 490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.
-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“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기록 관리 체계와 경험을 베트남·캄보디아와 공유함으로써 3국 간 기록관리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”면서,
- “한국의 선진 기록관리 경험과 성과가 베트남·캄보디아의 기록관리와 공공행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|       |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국가기록원    | 책임자 | 센터장 | 최유균 (031-750-2131) |
|       | 기록관리교육센터 | 담당자 | 주무관 | 강남화 (031-750-2134) |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**

